

Kim의 치료적 대인간호중재 기법

대인간호중재 기법은 김수지 박사에 의해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으로 개발된, 사랑을 표현하는 8가지 기술이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촉진시키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기는 하나, 사랑의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에서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8가지 기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아보기(Noticing)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소한 변화나 기분을 파악하는 기술로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웃차림,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기분변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족관계, 가장 고통스러운 점 등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는 기술.

2. 동참하기(Participating)

상대방이 경험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치료활동에 참여하는 기술.

식사시 '아'하고 입벌리게 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꿀~떡'하고 소리를 내어주는 행위 등.

3. 나누기(Sharing)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삶을 나누는 기술. 있는 것, 가진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배운 것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가령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 공

통된 주제에 대한 견해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등.

4. 경청하기(Listening)

들어야 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의식적,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 언어 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기분, 표정, 느낌 등을 파악하면서 듣기,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해 듣기,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 것,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하면서 듣기 등.

5. 칭찬하기(Complimenting)

상대방의 장점 및 잠재력을 찾아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술이다.

잘한 점을 칭찬해 주는 것, 좋았던 기억을 회고하는 것, 긍정적인 면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 등(사소한 의사 결정 참여, 잘 삼킨 것, 잘 참는 것, 잘 돌아놓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칭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할 수 있다는 격려).

6. 동행하기(Companioning)

혼자 외롭게 가야하는 길을 함께 가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행함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충분한 시간, 여행, 쇼핑, 등산).

7. 안위하기(Comforting)

환자나 가족이 좌절하고 힘들어 할 때 그의 입장에서 그의 느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힘



5면 하단에 계속됩니다.